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23.(수) 16:00 < 10.24.(목) 조간 > 배포 2024. 10. 23.(수)

# 한-알제리, 18년 만에 경제공동위 개최키로

- 장관, 브라임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과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3.(수) 서울(롯데호텔)에서 방한한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2003년 부테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의 방한 이후 알제리 측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프리카 내 한국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알제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6월(서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고위급 교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날 면담에서 안 장관은 알제리에 진출한 우리 플랜트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부갈리 하원의장의 적극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의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제리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강화된 알제리정부의 수입 규제조치 완화를 요청하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발전 노하우를, 알제리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7년간 중단되었던 공동위원회를 신속히 재개하여 알제리의 산업다변화 정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안 장관은 경제공동위의 재개를 환영하며, 우리측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의 산업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간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서 우리 측이 기 제안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부처 간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담당 부서 | 통상협력국<br>중동아프리카통상과 | 책임자 | 과 장 | 권현철 (044-203-5720) |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덕미 (044-203-57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